20년 이상 경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나선다

전주시, 아중·서신1·서곡·서신2·삼천·효자지구 등 대상 사업 추진… 미래도시 전환 도모

전주시가 아중지구와 서신동, 서곡지구 등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대규모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올해 대규모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및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용적률 상향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주지역에서 시행령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곳은 △아중지구 △서신1·서곡지구 △서신2지구 △삼천·효자지구 4곳이 해당된다. 해당 요건은 조성이 완료된지 20년이 경과하고 단일택지의 면적 또는 연접한 다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거나, 단일택지 80만㎡ 이상으로 인접지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 중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대상 지역에 대한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정비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기능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계획 △특별정비예정구역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후 시는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 지역 주민과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와 전북특별자치도 승인을 거쳐 2026년 7월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상반기 공포를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키로 했다.

조례안에는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에 관한 사항 △증가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주택개발팀을 신설해 국토교통부와 다양한 정책을 공유해왔으며, 전국 지자체 협의회에 참석해 도시정비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적극 참여해 왔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기반조성실장은 "전주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시공간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지역 기업 베트남 진출 전략 현지서 논의한다

우범기 전주시장, 3~9일 베트남 하노이 등 3개 지역 방문

우범기 전주시장은 오는 11월 3~9일 6박 7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와 박닌, 호치민 등 3개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전주에서 열린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발판 삼아 글로벌경제 중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동남아의 경제 중심이자 전주시 수출국 6위 국가인 베트남을 찾게 됐다.

우 시장은 이번 베트남 방문 일정 중 식품·미용·바이오 등 전주지역 경제인 대표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과 함께 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주시 경제사절단은 출장 첫 일정으로 KOTRA 하노이 무역관을 방문하여 베트남 경제 현황을 청취하고, 전주시 기업의 진출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한인 경제인들을 초청해 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베트남과 전주시의 공동 성장을 위한 논의 자리를 마련한다.

특히 오는 5일에는 지역 우수기업 8개사가 참여하고, 현지 바이어 30개사 대표를 초청하는 수출상담회도 열린다. 우 시장은 이날 상담회장을 찾아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와 해외 판로 개척지원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비나텍 박닌공장을 방문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및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삼성전자 하노이 R&D센터를 방문해 현지 운영 현황을 청취하게 된다.

또한 우 시장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는 호치민으로 이동해 'K-BEAUTY 박람회'에 참가하고, 경제기관을 방문하는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최하는 'K-BEAUTY EXPO VIETNAM(K-뷰티엑스포 베트남)'은 K-뷰티 1위 수출국인 베트남에서 열리는 대규모 미용 박람회로, 총 150개 기업과 해외 바이어 100개사가 참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경제사절단은 또 'SIBUB(Saigon inovation Hub)'와 △성장주기별 창업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네트워크 강화 협력 등을 골자로 한 창업기업 상호 교류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우 시장은 오는 8일 호치민 무역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베트남과 전주시 수출 기업간 상호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해외 출장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 방문을 통해 양국의 산업·경제 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의를 다지고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새로운 판로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인후2동 새마을협의회, 환경정비 나서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새마을협의회(회장 이정섭)는 지난달 30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백제대로 일원 환경정비를 추진했다.

이날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은 관할구역인 환경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동네 곳곳에 쌓였던 각종 쓰레기를 정비해 쾌적한 마을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또한, 대로변 버스정류장과 주요 주행로 주변의 잡풀 제거 및 버려진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정섭 인후2동 새마을협의회장은 "매월 회원들이 관할구역 환경정비를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잡풀도 제거하고 쓰레기도 수거해 깨끗한 인후2동을 만들어 가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인후2동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새마을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백제대로 일원 환경정비를 추진했다.

이춘배 인후2동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주신 인후2동 새마을협의회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동에서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이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아동보호와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협력을 촉구했다.

'긍정 양육' 문화 확산 동참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참여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이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아동 보호와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협력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전주시정연구원에 따르면 박미자 원장은 이날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SNS를 통한 인증과 참여자 지목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며 긍정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박 원장은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오성현 전주소통협력센터장과 임선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장을 지목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아동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폭력 없이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면서 "연구원은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민·관 합동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전주시, 권역별 상습 투기·상가 밀집지역 등서 진행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시민과 함께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전주시청 직원과 완산 시민경찰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민관이 협력하여 진행하였으며, 주요 대상 지역은 권역별 상습 투기 지역과 상가 밀집지역 등으로 선정됐다.

단속반은 각 조별로 배정된 취약지동을 순찰하며 무단 투기된 생활쓰레기 등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정리하고,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쓰레기봉투 등을 직접 파봉하며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또한, 단속에 앞서 시민들에게 불법투기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이날 단속 중 경미한 분리배출 위반 행위를 계도 조치하였으며,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한 건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조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완산시민경찰연합회와 취약지 청소 및 순찰·계도, 불법투기 합동단속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매월 한 차례씩 현재까지 총 23회에 걸쳐 불법투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시는 올해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통해 총 546건을 적발해 약 94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767건의 경미한 적발사항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정대선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는 지역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투기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